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은 체제와 존엄의 하위 개념이다. 체제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체제 안전을 담보한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핵을 포기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 4년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한 분위기가 호전되어 왔다. 6·28 방침에 의한 가족농경제 중심의 협동농장 개선이 시랑 증산을 이끌었다. 5·30 조치에 의한 기업의 경영자율권 강화가 연간 1%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전국적으로 장마당을 450여 개 정도 허용함으로써 주민 생활용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했다.

장마당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국가의 재정 확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도

사고 전환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

더디지만 성과를 내는 가운데 대외투자 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군부가 군립해 왔던 이권사업 등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내부의 변화는 경제 문제에서 출발했다. 핵무력을 통한 최고의 억지력을 갖춘 후 국방비를 감축하고 유휴자본과 인력을 경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가졌다.

북한의 시스템상 국방력을 경제 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군수경제가 민간경제로 전환되는 사이의 안보 공백을 핵개발로 메우겠다는 논리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제재 해소 등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핵보유국의 지위는 대외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제재를 촉구한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국가 이익의 충돌은 흔한 일이다. 북핵 문제가 한중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간의 이견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한미일 동맹을 앞세운 대중 포위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난민문제 등 모든 후과를 중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여긴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원조 중단 등의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대만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난 23년 동안 북핵 협상은 지칠만 전락에 의해 추진된 적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방지기구(NPT) 탈퇴, 폐연료 재처리 시설 재가동, 핵실험 등 위기 국면이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조치로써 협상에 임해 왔다. 1994년 북미고위급협상도 북한이 임의로 핵연료봉을 추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핵 동결이라는 2·13 합의도 2006년 10월 1차 북 핵실험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기 국면에서 북한은 비관급 전술을 펼쳤고 미국은 급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기 발생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변화를 거듭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합의 불이행을 비판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잦은 정책 변화에 불평한다. 한미의 일관된 정책이 북한의 합

의 이행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현 단계는 상황 악화 방지가 급선무이다. 압박이라는 입구 전략을 세울 때는 대화라는 출구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 해결 전략은 사고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통일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의 대화·협력·평화라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자 북한의 붕괴·흡수라는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다.

북핵 문제의 정의적 해결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 독재정권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극적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확성기를 틀고 5·24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는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은 아니다.

압박과 제재는 실효성이 중요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중요하지만 지난 8년 동안 6자회담의 중단이 북한의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6자회담 참여국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종교칼럼



연광 스님  
중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수행자인 제가 항상 옷깃을 여미며 귀하게 읽는 선시(禪詩)가 있습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금일야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뜻을 풀자면 ‘논답인 들판을 걸어가다,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소.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입니다.

무한한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일등을 바라고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고 일등이 되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공을 꿈꾸면서도 그 과정에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있는 일은 누구나 잘하

수작후인정 (遂作後人程)

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적 부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강요와 회유라는 양단의 조건에 의해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할 때나, 심부름 등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컨대 “성적이 올라가면 무엇해주겠다”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면 회초리 맞는다”, “심부름 잘하면 얼마를 주겠다” 등등 매사에 우리는 채찍과 회유라는 조건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자신의 생활습관과 임무를 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눈치 봐서 합니다? 시켜야만 합니다? 시켜서도 못하고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TV를 보다보면 세상은 이것까지 유행의 경주가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경주, 개들이 달리는 경주, 사람이 달리는 경주 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야 스스로 달리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나 개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말에

는 직접 사람이 올라타서 채찍을 통해 달리게 만들고, 사람이 올라 탈 수 없는 개들의 경우에는 그 앞에 개들이 좋아하는 뼈다귀를 통해 유인함으로써 개들을 달리게 만들지요.

다시 말해 채찍 아니면 먹은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스스로 달리지 못하고 뒤에서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거나, 그 앞에 먹은 것으로 유인해야만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 할까요?

자신을 누군가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행해졌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실천적 행동에서 그 가치가 빛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은연중에 자신에 몸여익은 습관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건이 없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속에서 홀로 빛나 보일 것이며, 그 자신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먼저 보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각료 한 사람이 사사건건 링컨의 의견에 따지를 걸고 추진하려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한동안 계속되자, 한 친구가 오더니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링컨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링컨이 어느 한가한 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한 농부가 말을 몰아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농부에게 다가 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때 말 엉덩이에 파리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링컨이 파리를 털어버리려고 손을 든 순간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만 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평범한 갑남을녀의 삶이라도 산다는 것은 곧 나만의 발걸음으로 축적을 남기는 것 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들은 지나친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허물이라는 발자취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기 고

매락을 알고 소통하면 설이 즐겁다

라’는 말씀이 진담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10명 중 1명 뿐이라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도 있다. 2014년 기혼여성 커뮤니티 포털 야중마닷컴이 인터넷 기혼 여성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시어머니 말씀 중 ‘명절에 힘드니 오지마라’는 말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많은 응답은 “그대로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가 68%를 차지했다. 이어 ‘남편에게 맡겨라’는 답이 21%였고, ‘진심일 수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다.

며느리들은 억울하다 하소연할 것이다. ‘오라고 하면 갔을 텐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 하느냐’고 상대방 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른들이나 CEO들은 문자적 소통보다 맥락적 소통을 주로 활용한다.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하는 것이다. 아랫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피곤하게 이야기를 돌려 해서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맥락적

소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찰라서 절박한 감성적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빠도 내려 오거라’에 찾아온 며느리는 크게 기쁘지 않다. 지시에 따른 것이 자발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려오지 말겠는데 내려온 며느리가 반갑고 기쁘다.

CEO의 ‘오늘 시간 있어?’ 이 말도 시간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지금 약속 취소하고 시간 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다. 맥락적 소통을 잘 하지 못하면 즉, 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면 사회생활이 피곤해지기 쉽다.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듣는 맥락적 경청이 중요하다.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 감정, 배경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맥락적 소통이 필요하다. 어른신 말씀은 한 번쯤 뒤집어보자, 그리고 시어머니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현명한 답일 수 있다. 그래야 모두가 즐거우 명절이고 정겨운 설 잔치가 될 수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국가 철도망 계획에 호남만 쏙 빼 이유 뭐냐

최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들여다보면 국토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떤 일인지 호남의 핵심 사업만 쏙 빼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철도사업 81개에 8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남권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 최근 제주공항 마비 사태로 급부상한 ‘서울~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제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의 무안공항 경유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서해안고속철도(군산~목포), 익산~여수 고속철도(현재는 고속화철도)도 누락됐다.

영호남을 잇기 위해 2차 계획에 들어 있던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추가 검토도 분류돼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전선 진주~광양과 광주송정~순천은 기존 2차 계획 예정 사업이다. 사실상 신규나 대규모 투자 노선은 전무하다.

반면 수서~경기 광주선 신설을 시작으로 경부고속선과 중앙선 일부 선로가 추가 건설된다. 또 대구권(구미~경산), 충청권(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포항~삼척, 강릉~제진을 연결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중·동부는 촘촘히 연결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호남의 철도망은 언제 제대로 갖춰질지 알 수 없는데, 물류 수요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 많다. 가뜰스나 뒤떨어진 호남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를 못 할망정 긴요한 사업마저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이대로 가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제주 해저터널, 호남선 2단계 무안공항 경유와 지역 산업철도망은 시너지 확대에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 사업을 최종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을 설 제수용품 마련은 전통시장에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광주·전남 지역 전통시장(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쳐 시장을 찾는 손님이 뜸했지만 설 차례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마련하면 할인마트에 비해 20%가량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엇그체 가격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약 22만4000원이 들었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사과·배·대추·쇠고기·돼지고기·조기 등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반해 할인마트에서 이들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약 28만1000원이 들어가 재래시장보다 5만7000원 비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전통시장의

평균 17만9094원으로 제수용품 24개 품목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 슈퍼마켓은 19만8578원, 대형마트 21만7931원, 백화점은 32만7734원이나 됐다.

전통시장에서는 값싸다는 이점 외에 제수용품을 고르면서 상인들과 흥정하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이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웃 간에 정이 오가는 풍경이다.

게다가 그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차난도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개선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말바우시장과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가족이나 경기업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했으면 한다.

無等鼓

단 한 번 본인의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이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필부들의 인생 이념이다.

하지만 자신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

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희생

고흥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다 홀연히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할매 수녀’ 두 분의 인생도 ‘희생’이라는 한 단어로 응축될 수 있을 것이다. 갓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소록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두 수녀는 평생을 한센인에게 바쳤다. 아무리 신에게 귀의했다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 이들도 들어본 적 없던 작은 섬 소록도에서 한센인과 43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분 수녀에게 한 줌 갈등과 의혹, 회의가 없었다면 아마도 거짓일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병’은 천형으로

일컬어졌다. 그런 ‘나병’을 앓는 환자의 상처를 맨손으로 만지며 약을 발라 주고, 함께 앉아 밥을 먹던 두 분 수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70대 고령에 접어든 두 분 수녀는 “고령으로 타인에게 부담이 되기에 떠나다”며 달랑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훌쩍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또한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대목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오전환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필부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라도 ‘한

밤중 벌떡 깨어 일어나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하는 가슴 속 의혹과 갈등’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 오 했음을 짐작하기에 두 분 수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는 말이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다. 그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선택 내버린 이웃들에게 적어도 감사의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  |  |   |  |
|--|--|---|--|
| <b>光 州 日 報</b>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  |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br>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br>(FAX 222-8005) (FAX 222-0195) |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br>(FAX 227-9500) (FAX 227-0195) | 경 제 부 2200-663 문 화 부 2200-661<br>정 치 부 2200-652 문 화 부 2200-661<br>(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br>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br>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